논어 3편 팔일 2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管仲之器小哉！」或曰：「管仲儉乎？」曰：「管氏有三歸，官事不攝，焉得儉？」「然則管仲知禮乎？」曰：「邦君樹塞門，管氏亦樹塞門。邦君爲兩君之好，有反坫，管氏亦有反坫。管氏而知禮，孰不知禮？」

독음 · 자왈 관중지기소재 혹왈 관중검호 왈 관씨유삼귀 관사불섭 언득검 연즉관중지례호 왈 방군수색문 관씨역수색문 방군위량군지호 유반점 관씨역유반점 관씨이지례 숙부지례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는 관중의 그릇이 작다고 했다. 집안 운영은 검소하지 않았고, 제후의 의례를 따라 한 것도 예에 맞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管 피리 관 관 / 仲 버금 중 중

之 갈 지 / 器 그릇 기 기 / 小 작을 소 소 / 哉 비로소 재 재

或 혹 혹 혹 / 儉 검소할 검 검 / 乎 어조사 호 / 氏 성 씨 씨

有 있을 유 / 三 석 삼 삼 / 歸 돌아올 귀 귀 / 官 벼슬 관 관

事 일 사 사 / 不 아닐 불 / 攝 몰아 잡을 섭 섭 / 焉 어찌 언 언

得 얻을 득 득 / 然 불사를 연 연 / 則 곧 즉 / 知 알 지

禮 예도 례 례 / 邦 나라 방 방 / 君 임금 군 / 樹 나무 수 수

塞 막힐 색 색 / 門 문 문 문 / 亦 또 역 / 爲 할 위

兩 두 량 량 / 好 좋을 호 / 反 돌이킬 반 반 / 坫 잔놓는자리 점

而 말이을 이 / 孰 누구 숙 숙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